

교육에세이 84

역지사지(易地思之)는 남을 배려하는 숭고한 마음



이 호 연
영평초등학교 교장

필자는 1970년대부터 1990년대 초까지 전라남도 여수에서 교사시절을 보냈다. 여수에 가면 1939년에 개교한 여수동초등학교가 있다.

이 학교는 학교 건물의 모든 건축자재를 일본에서 직접 가져와 건축한 건물이다. 필자가 근무했던 1980년의 이 건물을 소개해 본다. 2층 건물인데도 우리나라 3층 건물 높이이다.

6.25 사변 때 지붕에 폭탄이 투하되었는데 폭탄이 투하된 부분만 일부 파괴되고 건물은 전혀 파괴되지 않았다고 한다.

이 건물에 이어서 교사(敎舍)를 신축하기 위해 기초 공사를 하려고 건물 옆 부분을 포크레인으로 깎았는데 기초공사가 너무 단단해서 포크레인이 파내지 못해 결국 일정한 깊이를 두고 교사(敎舍)를 신축했다.

창문을 보면 레일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목재부분을 파내어 창문을 여닫을 수 있게 만들었는데 창문을 닫아 놓으면 태풍이 불어도 전혀 '덜거덜' 거리는 소리가 나지 않고 여닫을 때도 시끄러운 소음이 나지 않는다.

이런 미세한 먼지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정교하게 조립되어 있다.

천정이 높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전혀 덥지 않다.

또한 운동장은 암거 배수 시설을 해 놓아 아무리 비가 많이 내려도 비가 그치고 10분만 지나면 곧바로 운동 할 수 있을 정도로 물 빠짐이 좋다. 이것이 1930년대에 일본 사람들이 지어 놓은 교사(敎舍)와 운동장의 모습이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지은 건물의 경우 새로 지은 건물인데도 불구하고 거센 바람이 불면 창틀의 '덜거덜' 하는 소리가 시끄러워 수업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이며 심지어는 지탱하지 못하고 떨어져 버리는 경우를 목격하기도 했다.

그 옛날 일본의 건축 기술과 최근 우리나라의 건축 기술에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것일까? 결코 그렇다고 보지는 않는다. 여기에는 건축하는 사람의 주인의식이 얼마나 작용했느냐에 달려있다고 본다. 또 한 얼마나 역지사지(易地思之)하는 마음이 작용했느냐에 달려있다고 본다.

역지사지하는 마음은 남을 배려하는 숭고한 마음이다. 바로 주인의식과도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내가 살집이라는 마음으로 건축을 한다면 결코 건축물에 하자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나의 집이 아니고, 나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랑퐁팡 짓는 '나그네 정신'으로 건축을 하니까 건축물에 하자가 발생한다.

필자가 현재 기거(居)하고 있는 학교 관사에 있는 화장실의 변기에 물 빠짐이 좋지 않다. 변기를

사용하고 난 후 곧바로 사용하고 물을 내리면 배수가 되지 않고 변기에 가득 차 버린다. 참으로 황당한 일이다. 한 겨울에도 역시 같은 현상이 있어서 학교의 화장실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었다. 그런데 최근 학교의 화장실을 리모델링 하면서 교장 관사 화장실도 개선을 위한 공사가 병행됐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변기에서 나온 PVC 파이프가 20m정도 뻗어 나가다가 정화조로 연결되지 않고 땅 속이 노출시킨 뒤에 묻어버린 것이다. 참으로 황당한 일이다. 배출된 화장실의 오수가 정화조로 연결되지 않고 그대로 땅 속에 스며들도록 시공한 것이다. 실제로 이렇게 시공하라고 설계되었을까? 절대 그렇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시공한 그 누군가가 설계도에 나와 있지 않은 방법으로 이런 황당한 공사를 감행해 버린 것이다. 참으로 어처구니없고 거론하기조차 부끄러운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론하는 것은 우리의 양심을 회복하고 역지사지(易地思之)하는 마음을 갖자고 강조하고 싶어서다. 일본 사람들은 자국의 입장에서 보면 식민지 국가인 우리나라에 건축한 건물에 폭탄이 투하되어도 투하된 지점 일부만 파괴 될 정도로 단단하게 건축하였는데 우리나라의 건물을 우리나라에 건축하는데 부실하기 이투 말할 수 없도록 건축하는 차이점은 국민성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다.

일본 사람들이 교육에서 강조하는 내용은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다.'는 정신이 기본을 이룬다고

한다.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마음은 결국 역지사지(易地思之)하는 숭고한 마음이다. 이제 우리나라도 세계 13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했다. 배고픈 시대는 지났다는 이야기다. 배고픈 시절에는 건축을 부실하게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세계 13위 경제대국이 되고 하는 오늘날에도 이런 일이 대물림하고 있다면 분명히 국민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아야 하며 국민성 개조 운동을 벌여야라도 이런 황당한 일이 재현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성경에 "자녀가 떡을 달라하면 돌을 줄자가 없다"고 했다. 후손들이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은 이 땅 부모들의 공통된 생각이다.

그렇다면 어른들은 어떤 곳에 어떤 일을 할지라도 역지사지(易地思之)하는 마음, 남을 배려하는 숭고한 마음으로 맡은 일을 해 내려는 의지를 자녀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

한 건축가가 오랫동안 같이 일했던 인부에게 일직액을 주면서 집 한 채를 지으라고 했다. 그 인부는 산 건축 자재를 구입하여 얼렁뚱땅 집을 지었다. 집을 다 짓고 집 열쇠를 주인에게 건네주었다. 그러자 집 주인은 다시 그 열쇠를 인부에게 건네주면서

"그 집은 그 동안 자네가 나와 오랫동안 함께 건축 일을 해서 내가 그 은혜에 보답하는 의미로 자네에게 돌려 건축 집일세."

남을 배려하는 마음은 곧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해 주는 숭고한 마음이기도 하다.

특별기고

생태도시의 조건 ⑮

포천시가 경관생태학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



공명수 교수
대전대학교 영문학과

우리는 포천의 미래상에 대해 "아직 개발이 되지 않아 원점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다"거나 "이상적인 자연도시를 건설할 수 있다"고 종종 말한다. 이러한 담론은 요즘 매스 미디어를 통해 거론되는 명품도시의 조건에 맞추어 생각해 보면 얼마든지 긍정적인 해답이 나올 수 있다.

"이상적인 자연도시를 원점에서 다시 건설하자"는 담론과 명품도시에 대한 욕구를 경관생태학에 함축적으로 집약시킨다면 우리지역은 단순히 명품도시에 머물지 않고 이상적인 자연도시를 현실 속에서 얼마든지 실현시킬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명품도시 건설계획을 경관생태학의 조건에 기본적인 바탕을 두고 우리가 접근한다면 포천의 차별화된 명품도시가 탄생할 수 있을 것으로 여긴다.

먼저, 우리는 갖가지 이질적인 요소들이 저마다 아우러져 있는 생명력의 공간을 포천이 내세울 수 있는 명품도시의 입지조건으로 활용해야 한다.

어떻게 보면 이 같은 주장은 150만평 이상의 신도시 건설계획에 골몰하고 있는 지역 행정가들 및 정치가들이나, 혹은 서울의 강남지역과 같은 명품도시 모델의 환상에 젖어 있는 일부 지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터무니없는 헛소리로 들릴지 모른다.

이들은 150만평 이상 규모의 신도시를 건설하면 우리 지역에 인구흡인 요인이 작용하여 포천지역이 규모적인 측면에서 확장되고, 여기에도 인구증가 요인이 발생하면 전철과 같은 대중교통 인프라의 유치가 용이해져 우리 지역이 지금보다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서울이라는 대도시와 인접한 곳에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는 포천이라는 지역을 다른 도시와는 차별화된 명품도시로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본다면 기존의 신도시 개념은 시대에 뒤떨어진다는 생각을 지을 수 없다.

우선 우리는 어떤 지역이든 명품도시를 선택할 입주민들의 보편적인 취향과 기호를 미래지향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지금 현대인들은 획일화된 콘크리트 문화에 모두 지쳐 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모두가 문화적 욕구와 교육적 인프라란 갖추어 진다면 한적한 시골의 전원이 있는 공간 속으로 모두들 도피하고 싶어 한다.

심지어 이-메일이나 유비쿼터스 같은 첨단 전자매체의 일상화로 인해 전문직에 종사하는 직장인들도 앞으로 직장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출근하고 일상적인 업무를 도심에서 벗어나 한적한 시골에서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앞으로 지구촌이 국가와 국가의 경계를 허물고 범세계적으로 글로벌화 되면 필수로, 각 지역 공동체의 고유한 문화와 전통이 더욱 더 현대인들의 주요 관심의 대상이 될 것이다.

지구촌이 점점 더 글로벌리즘과 로컬리즘이 함께 결합되는 글로벌리즘(세계화와 지역화의 점목) 형태를 취한다고 하겠다.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 전통과 현대, 도시와 전원, 인간과 자연이 상호 호혜적인 관계 속에 절충된다는 점에서 포천과 같은 지역은 앞으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삶의 의미 있는 장소로 자리매김 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포천은 후기산업사회의 미래지향적인 삶의 장소로서 다른 어떤 도시보다 전원과 도시를 조화시킬 수 있는 입지조건을 적절히 갖추고 있다.

이미 그것의 개념을 정의했듯이, 경관생태학에는 이질적인 생물군들이 각기 다양한 차이를 형성하도록 적절히 배열하는, '공간적 차원에서 생태계의 유기적인 연결망의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다. 다시 말해서 경관생태학은 인간의 지속 가능한 현명한 토지 이용과 공간적 요소 사이에 생태학의 유기적인 원리를 접목시키는 명품도시 계획에 반드시 필요한 개념이다.

경관생태학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도시든 그 도시가 갖추고 있는 시간과 공간과의 밀접한 관계성이 중요하다. 우리는 대도시 경제 지점에서나 볼 수 있는 도시인들의 갖가지 삶의 애환이 살아 숨쉬고 있는 야생 자연을 이제 우리의 삶의 공간 속으로 끌어들여야 할 시점에 와 있다.

경관생태학의 측면에서 포천의 이상적인 명품도시의 모습을 상상해 본다면, 그 규모는 최소한 50만평은 넘지 않는 촌락이면 좋다.

10만평 이하의 일종의 마을 규모의 촌락이 20곳 정도 형성되어, 각 촌락마다 나름대로의 특성을 갖추고 유기적인 생태적 띠를 형성하고, 논밭을 포함하여 토지이용과 각종 생태식물을 행정적으로 철저히 관리한다면, 포천은 다른 어떤 지역보다 차별화된 명품도시로 거듭날 수 있다.

아니면, 아주 파격적으로 50만평의 규모에 소형 골포장을 만들고 그곳의 주요 길목에 다양한 형태의 건축기법으로 집을 짓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미 100가구 규모의 마을에 바로크 양식이나 고딕 양식을 포함하여 10가지 이상의 다양한 건축기법에 따라 집을 짓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관생태학 개념이 적용되고 있는 미국의 플로리다나 시카고의 생태 공동체의 예를 우리는 철저히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이제, 포천은 경관생태학의 개념에 입각하여 현대인들의 미래지향적인 휴식공간이자 삶의 공간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생태 공동체를 소규모 단위로 곳곳에 만들어야 한다. 포천의 명품도시는 일반인들의 상상을 뛰어넘는 정도로 파격적으로 차별화 되어야 한다. 이것이 포천이 살기 좋은 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길이다.

자유기고

아내의 역할



박서영
주부명예기자단 총무

과거 1960년대 거슬러 올라가 돌아보면 농경시대 주역이 농업, 일의 중심의 시대라고 하면 1990년대 산업사회, 기계화, 기술의 시대, 2000년대 정보화시대-인터넷 중심(시간 곧 돈)인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

현대 아내는 만능을 요구하는 시대에 아내로서 어떻게 살고 있느냐가 되돌아보게 된다. 여고를 졸업한 후 대학진학을 못하고 직장생활을 시작했다. 부모님이 사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더 잘 살거야"라는 생각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썩어 트고 있었다.

보통사람으로 살아가시는 부모님은 매일매일 자녀교육 걱정, 내일 일이 없으면 어쩌지!! 하면서 한숨 내쉬는 엄마, 아버지도 일이 없으면 걱정과 한숨이 앞서는 생활이

계속된다. 잔 걱정에 하루하루를 보내시는 부모님을 보고 왜? 남들은 잘하는데 우리 부모님은 까니와 자식 걱정을 하고 있다. 이해가 되지 않았다. 나도 어느새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고 한 가정을 이루면서 어떻게 살아 갈 건지 걱정이 앞섰다.

먼저 내 집 마련이 우선이고 다음은 건강하게 키우기, 교육에 신경 쓰고 좋은 유치원, 이를 있는 학교 등 남들과 똑같은 공상처럼 살아가고 있다.

저축도 하고 보험도 들고 그래도 남보다 늦게 결혼을 했으니 더욱 열심히 발로 뛰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 장사를 해보자고 의논하고 시작했다.

유아복 체인점(베이비복, 헤밀리아.....)등으로 만 7년 가게를 운영

하면서 성원아파트(33평)를 구입하고, 국도교장 1층(4평) 상가도 분양 받았다. 계획대로 적적 논란 뜨면 기계로 밭갈이 옮겨지고 남편은 남편기계로 서로 맡은 분야에서 열심히 뛰었다.

이렇게 5~6년 경영하다보니 자영업의 한계에 접어들고 IMF가 왔다. 막 8년째 접어들었을 때 접어안테아 할 상황이 왔다. 인건비, 두 아이의 교육비를 걱정하는 시기가 왔다.

의논 끝에 정리하기로 결정하고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관심이 생겼다. 공부해보니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특정한 동아줄이라는 확신이 섰다.

하면 할수록 잘 선택했다는 생각을 갖게 한다. 현재는 네트워크 마케팅 10년째 나의 달란트를 살릴 수 있는 좋은 기회다.

또한 메이크업과 미용에 관심과 기술을 갖고 있다. 그런데 네트워크 마케팅을 접하면서 기회가 왔다. 현재는 인세수입이 들어와 특정한 동아줄이 생겼고 남편은 본업 포도농업을 경영하게 돼서 기쁘다. 남편은 고향에 들어와 만 5년 만에 부모님과 함께 포도농원에 힘써 2006년도 대한민국 대상을 획득했다.

남편은 또 한 번 최고 경영인의 자리에 자신감이 생겨 더욱 열심히 일하고 있다. 남편과 시부모님은 포도경영이 남다르고 남편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보니 영업(판매) 담당을 맡아서 서로 노력하고 있다.

서로의 수고에 대해 칭찬과 격려 속에 2008년도 풍년가를 부르며 포도 수확에 막바지 힘을 보태고 있다.

축 OPEN

휴식 조경공사

포천 나무(묘목) 시장
각종 유실수 및 관상수 묘목 · 잔디 · 도/소매

대표 김영해

TEL. 535-6085
팩 스 : 031)536-6086
휴대폰 : 011-757-6085

포천시 군내면 하성북리 546-7(대운광장 뒤)

잔디, 묘목, 관상수, 유실수, 준공수
자연석, 강화석 전문시공

※ 농가에서 재배하신 수목을 구매 및 판매하여 드립니다.